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비교연구

김귀분¹ · 석소현²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¹, 조교수²

A Comparative Study on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Middle-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Kim, Kwuy Bun¹ · Sok, Sohyune R.²

¹Professor, ²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and compare th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middle-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Methods:** The sample included 430 (Korean: 220, Chinese: 210) middle-aged women. Study instruments were the Self Efficacy Scale developed by Shere et al (1982), the Social Support Scale modified and based on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 developed by Cohen and Hoberman (1983), and The Quality of Life Scale (SF-36) developed by Ware and Book (1981).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6 version. **Results:** Korean women reported more self efficacy and better quality of life than the Chinese women. The quality of life scores between middle-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showed a statistical significant difference. Self efficacy and quality of life scores reported by middle-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were below the reported standards of the instruments. In contrast to the other scores, Chinese women reported more social support than Korean women. **Conclusion:** The findings add to the body of literature about Chinese and Korean middle aged women.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explain the differences among the two groups but the findings can inform the practicing nurse who works with these populations.

Key Words: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Middle-aged, Wome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사회 및 경제적으로 상호 국가 간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간호학적 면에서도 국제적 상호교환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관리 체계 시장의 세계화는 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인 상호 파트너십을 자극하며 간호사들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시킨다(Hwang et al., 2009).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국제적 간호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간호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이해는 간호실무와 간호표준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현대사회는 인간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년기 이후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 기간 동안 보다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젊은 나이에 출산을 끝내고 중년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으며(Sung, Yoon, & Son, 2005), 이 때문

주요어: 중년, 여성, 자기효능, 사회적지지, 삶의 질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ok, Sohyune 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144, Fax: 82-2-961-9398, E-mail: 5977sok@khu.ac.kr

투고일 2010년 5월 20일 / 수정일 2010년 7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24일

에 중년기의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Park, Kim, & Cho, 2003). 여성의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 이외에 자녀의 결혼 등과 같은 사회,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다(Park et al., 2003). 만일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무가치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며 사회적 지지 체계의 약화와 더불어 불안, 초조,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Yu, Yang, & Yoon, 2000). 특히 여성은 폐경이라는 현상과 함께 이에 따른 다양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게 되며(Shin & Kim, 2001), 이로 인하여 자기효능이 떨어지고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Sung et al., 2005).

Bandura (1977)에 의한 자기효능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특히 중년여성에게는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폐경이 일어나 생식능력을 상실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효능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Seo, Park, & Lee, 2003). 중년 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을 통하여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며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시키고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 및 스트레스 강도를 완충시킬 수 있다(Kim, Oh, & Na, 1999; Norbeck, 1981; Thoits, 1982; Yu et al., 2000). 중년기 여성의 삶의 질은 갱년기 증상과 관련하여 느끼는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말하며 갱년기 증상을 많이 경험할수록, 정도가 심할수록, 장기간 경험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Dunbar, Stoker, Hodges, & Beaumont, 1992; Park et al., 2003).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 폐경지식, 폐경관리, 사회적지지, 우울, 스트레스 및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Choi & Oh, 1998; Kim et al., 1999; Norbeck, 1981; Thoits, 1982; Seo et al., 2003; Yu et al., 2000). 특히 중년여성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지각된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우울, 스트레스, 경제상태(Lee, 2002; Oh, 2000; Pakenham, 1999; Shin & Kim, 2001; Shin & Yang, 2003) 등이 있었다. 중국여성들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중국여성의 사회적 변화(Cho, 1997), 중국과 한국의 여성지위 비교(Lee, 2002), 중국여성의 지위에 대한 산업화의 영향(Jeong, 2005), 중국과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 비교(Poong, 2007), 중국과 한국 간호사의 전문직관 비교(Hwang et al., 2009)와 같이 종설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중국여성들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중년여성의 자기효능은 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나 그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며, 사회적 지지는 한국과 중국의 사회적 문화적 비교를 위해서 중요한 연구변수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여성의 인생발달 주기 상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초래되는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문제를 야기하면서 자기효능감 감소 및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이라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 보장이 요구되며 특히 이시기는 노년으로 들어가는 생의 전환기이므로 중년기에 나타나는 사건과 변화에 잘 대처하여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년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가 개인적인 특성 내지 생활환경, 특히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즉 서양과 동양, 그리고 동양에서도 한국과 중국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가지 관습, 가치, 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국과 중국의 국제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국제적 간호대상자로서의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 정도에 대한 이해는 의료 개방이라는 국제화에 발맞추어 간호학적 연구과제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자기효능, 사회적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비교 문화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간 차이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년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비교 문화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다.
-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차이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 중 한국의 경우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북경에 거주하는 40~64세의 중년여성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하며 언어적·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설문지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여 응답할 수 있는 지남력 장애가 없는 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총 500명(한국 중년여성 250명, 중국 중년여성 250명)이 임의 표집 되었으나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한국 중년여성 220명과 중국 중년여성 210명으로 총 430명이 본 연구에 최종 참여하였다. 표본의 수는 Cohen 공식(Lee, Lim, & Park, 1998)에 의해 효과크기 작은 수준($f=.15$), 집단 수 2,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일 때 350명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분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중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하여 번역-역번역 과정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도구의 번역-역번역 과정은 간호대학으로 유학온 조선족 학생에 의해서 한국어로 된 도구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된 도구를 또 다른 조선족 학생에 의해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일치도를 높였다. 또한 중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과 한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1) 자기효능

자기효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 등(1982)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인 자기효능을 Suh (1995)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Suh (1995)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alpha = .84$ 였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한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Cronbach's $\alpha = .89$ 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과 Hoberman (1983)이 개발한 대인관계 지지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기초로 Seo (1988)가 수정한 도구를,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문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최저 18점에서 최고 72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Suh (199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한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3) 삶의 질

Ware와 Book (1981)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 Study Short Form36 (SF-36)를 Ko, Jang, Kang, Cha와 Park (1997)이 번안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8개영역(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신체적 역할 제한,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건강, 활력, 통증, 일반건강), 36개의 문항, Likert 2~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의 분포는 34~14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도구의 8개영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다. 이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Cronbach's $\alpha = .89$ 였고 한국의 연구대상자를 위한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자료수집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K대학교 N대학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경우는 서울,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중년여성을 직장, 시장, 및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 후 참여를 허락한 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간호대학으로 유학온 조선족 학생이 방학 중 고향인 중국 북경을 방문했을 때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를 직장, 시장 및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자에 한하여 동의서를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대상자가 자의적으로 연구참여를 수락한 자로 하였으며,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설명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 중년여성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동질성 검정은 χ^2 test를 실시하였다.
- 한국 중년여성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차이를 나타낸 월수입은 공변량 처리하였다.

- 한국 중년여성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정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처리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Duncan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은 Table 1과 같았다. 연령에서는 한·중 중년여성 모두에서 50~59세가 각각 63.2%와 67.1%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에서는 한국 중년여성은 고졸이 50.0%로 가장 많았고, 중국 중년여성은 대졸 이상이 47.6%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한·중 중년여성의 기혼이 각각 78.2%와 7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혼이 각각 9.1%와 11.4%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N=430)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n (n=220)	Chinese (n=210)	χ^2	p
		n (%)	n (%)		
Age (year)	40~49	77 (35.0)	67 (31.9)	1.136 [†]	.565
	50~59	139 (63.2)	141 (67.1)		
	60~64	4 (1.8)	2 (1.0)		
Education	None	6 (2.7)	9 (4.3)	8.971 [†]	.058
	Elementary school	24 (10.9)	16 (7.6)		
	Middle school	3 (1.4)	2 (1.0)		
	High school	110 (50.0)	83 (39.5)		
	≥ College	77 (35.0)	100 (47.6)		
Religion	Protestant	39 (17.7)	45 (21.4)	3.454	.488
	Catholic	27 (12.3)	29 (13.8)		
	Buddhism	50 (22.7)	34 (16.2)		
	Confucianism	5 (2.3)	6 (2.9)		
	None	99 (45.0)	96 (45.7)		
Marital status	Married	172 (78.2)	167 (79.5)	2.415	.664
	Bereavement	12 (5.5)	9 (4.3)		
	Divorce	20 (9.1)	24 (11.4)		
	Separation	16 (7.2)	10 (4.8)		
Monthly income (10,000 won)	< 100	23 (10.5)	68 (32.4)	43.407	<.001
	100~< 150	47 (21.4)	48 (22.9)		
	150~< 200	63 (28.6)	58 (27.6)		
	≥ 200	87 (39.5)	36 (17.1)		
Occupation	Public servant/office worker	63 (28.6)	66 (31.3)	1.805	.835
	Professional	104 (47.3)	101 (48.1)		
	Commerce	20 (9.1)	15 (7.1)		
	House keeper	33 (15.5)	28 (13.4)		

[†] Fisher exact test.

다. 월수입에서는 한국 중년여성은 200만원 이상이 39.5%로 가장 많았고 중국 중년여성은 100만원 미만이 32.4%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한·중 중년여성 모두에서 전문직이 각각 47.3%와 48.1%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Table 1), 두 집단의 월수입을 제외하고 그 외의 일반적 특성 간에는 서로 동질함이 검정되었다.

2.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비교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비교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자기효능에서는 한국 중년여성이 총점 평균 46.65점으로 중간 이하를 나타냈고, 중국 중년여성은 총점 평균 46.09점으로 역시 중간 이하의 자기효능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한국 중년여성이 총점 평균 49.07점으로 중간 이상을 나타냈고, 중국 중년여성도 총점 평균 49.24점으로 중간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나타냈다.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 간의 자기효능($t=-.963, p=.336$)과 사회적 지지($t=.173, p=.863$)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삶의 질에서는 한국 중년여성이 총점 평균 70.06점으로 중간 이하를 나타냈고, 중국 중년여성은 총점 평균 57.44점으로 중간 이하의 삶의 질을 나타내어 두 집단 간의 삶의 질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2.568, p<.001$).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나타낸 월수입은 공변량 처리하였다.

3.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상관관계 비교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한국 중년여성에서는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 간의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r=-0.353, p<.001$). 중국 중년여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4.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차이검정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차이검정은 Table 4, 5와 같았다.

한국 중년여성에서는 교육수준($F=9.667, p<.001$)과 직업($F=2.713, p=.031$)에 따라 자기효능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가 다른 기타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보다 자기효능 정도가 낮았고, 직업은 공무원, 사무직 또는 전문직이 상업이나 주부보다 자기효능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결혼상태($F=15.000, p<.001$)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사별한 경우가 기혼, 이혼, 별거인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았다.

중국 중년여성에서는 종교($F=2.621, p=.036$)와 결혼상

Table 2. Comparison of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Middle 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N=430)

Variables	Korean (n=220)	Chinese (n=210)	t	p
	M±SD	M±SD		
Self efficacy	46.65±4.92	46.09±6.90	-0.963	.336
Social support	49.07±10.51	49.24±9.88	0.173	.863
Quality of life	70.06±4.28	57.44±14.23	-12.568	<.001

Note. Monthly income was proceeded by ANCOVA statistics.

Table 3. Correlations of th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between Middle 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Variables	Korean (n=220)			Chinese (n=210)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Self efficacy	1			1		
Social support	-.353 (<.001)	1		-.131 (.058)	1	
Quality of life	-.017 (.802)	.044 (.513)	1	.033 (.634)	-.061 (.381)	1

Table 4. Differences of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in Middle Aged Korean Women (N=2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M±SD	F (p)	M±SD	F (p)	M±SD	F (p)
Age (year)	40~49	45.70±5.98	2,266 (.106)	49.10±11.71	0,327 (.721)	69.48±4.23	1,086 (.339)
	50~59	47.13±4.23		48.93±9.95		70.37±4.31	
	60~64	48.00±2.00		53.25±4.50		70.25±3.86	
Education	None ^a	43.83±2.48	9,667 ($<.001$)	47.83±9.99	6,632 (.112)	66.83±4.36	1,226 (.301)
	Elementary school ^b	46.13±2.37		45.92±11.20		70.08±4.03	
	Middle school ^c	32.00±17.32		44.67±24.83		71.33±3.21	
	High school ^d	46.28±4.58		52.43±9.02		70.42±4.47	
	≥ College ^e	48.12±4.27		46.26±10.30		69.74±4.05	
Religion	Protestant	47.08±3.86	4,719 (.216)	50.49±7.84	2,824 (.142)	69.26±3.84	1,803 (.129)
	Catholic	47.77±7.84		49.30±11.69		69.44±3.87	
	Buddhism	44.16±2.51		52.28±6.62		70.92±4.75	
	Confucianism	45.40±2.61		47.80±2.68		66.80±3.27	
	None	47.49±4.93		47.19±12.34		70.27±4.26	
Marital status	Married ^a	46.32±4.57	1,386 (.248)	50.90±9.45	15,000 ($<.001$)	70.05±4.40	0,038 (.990)
	Bereavement ^b	46.92±0.29		32.75±2.60		70.08±4.64	
	Divorce ^c	48.40±9.09		45.45±12.45		69.90±3.78	
	Separation ^d	47.75±2.05		46.13±10.82		70.38±3.46	
Monthly allowance (10,000 won)	< 100	45.65±4.27	6,187 (.243)	45.21±4.12	2,462 (.148)	69.92±3.87	1,753 (.218)
	100~<150	46.74±2.84		46.10±2.45		70.45±2.77	
	150~<200	47.22±4.24		46.87±4.12		69.90±4.75	
	≥ 200	47.10±2.32		47.04±2.44		69.29±4.13	
Occupation	Public servant/ office worker ^a	48.37±2.45	2,713 (.031)	47.33±4.82	1,867 (.117)	70.41±3.60	1,937 (.256)
	Professional ^b	50.42±1.68		47.45±5.39		68.36±4.48	
	Commerce ^c	44.68±3.24		45.82±4.25		69.20±6.07	
	House keeper ^d	44.42±2.43		46.21±2.14		68.45±5.29	

† Scheffe's test.

태($F=7.570, p<.001$)에 따라 자기효능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자기효능 정도가 낮았고, 결혼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인 경우보다 별거인 경우가 자기효능 정도가 낮았다. 그리고 종교($F=4.651, p<.001$)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 검정결과 불교인 경우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을 비교하고 확인함으로써 중년여성의 문화간 차이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고 확인하여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점수는 46.65점으로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점수 46.09점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자기효능 점수는 중앙치인 51점보다 모두 낮았다. 자기효능의 개념이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때,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인 배경이 여성의 비독자적, 의존적, 보호적 역할을 강조하는 유교적 철학이 지배적으로(Poong, 2007) 여성 자신이 어떠한 목표 또는 행동을 위한 변화와 지속시키고자 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Choi와 Oh (1998)와 Seo 등(2003)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자기효능 정도가 중간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화에 따른 결과로 가족구조, 여성의 가정 내

Table 5. Difference of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by General Characteristics in Middle Aged Chinese Women (N=21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Quality of life		
		M±SD	F (p)	M±SD	F (p)	M±SD	F (p)	
Age (year)	40~49	46,84±7,32	1,175 (.311)	47,34±8,81	2,022 (.135)	57,00±15,81	0,071 (.932)	
	50~59	46,02±6,51		50,19±10,26		57,69±13,95		
	60~64	43,62±8,97		47,08±9,10		56,62±10,52		
Education	None	48,89±3,18	1,281 (.279)	43,11±8,24	1,422 (.228)	61,11±16,72	0,854 (.486)	
	Elementary school	47,31±7,85		51,38±10,05		51,81±9,01		
	Middle school	54,00±7,07		54,50±4,95		52,50±3,53		
	High school	45,90±6,07		50,04±11,17		57,86±14,78		
	≥ College	45,64±7,54		48,68±8,72		57,77±14,30		
Religion	Protestant ^a	44,87±3,14	2,621 (.036)	52,27±9,10	4,651 (.001)	60,87±15,32	0,701 (.592)	
	Catholic ^b	40,56±12,56		53,00±11,36		51,11±8,76		
	Buddhism ^c	44,07±9,48		b<e [†]		c>e [†]		57,40±15,65
	Confucianism ^d	46,40±6,28		48,35±9,71		57,67±14,52		
	None ^e	48,15±6,70		46,23±6,60		56,42±12,78		
Marital status	Married ^a	46,60±6,43	7,570 ($<.001$)	49,79±9,85	2,708 (.128)	57,36±13,69	2,755 (.145)	
	Bereavement ^b	46,11±7,74		45,67±4,06		57,00±10,31		
	Divorce ^c	46,50±6,32		a, b, c>d [†]		56,50±5,01		
	Separation ^d	36,40±8,75		47,10±2,71		56,90±24,10		
Monthly allowance (10,000 won)	< 100	44,90±2,90	2,754 (.146)	44,12±3,43	5,084 (.215)	56,09±14,17	1,753 (.218)	
	100~<150	45,85±1,53		45,48±2,62		57,12±11,25		
	150~<200	47,46±3,14		47,52±3,52		57,90±8,71		
	≥ 200	47,23±1,74		47,88±1,84		58,62±10,21		
Occupation	Public servant/ office worker	47,26±6,14	1,570 (.198)	49,08±9,78	0,723 (.539)	59,05±13,29	0,532 (.660)	
	Professional	45,01±6,23		48,71±9,80		57,21±15,24		
	Commerce	46,67±7,13		48,47±7,99		55,60±13,23		
	House keeper	46,74±9,66		51,61±11,19		55,65±13,60		

[†] Scheffe's test.

역할 및 생활양식이 변화되고 가치관과 직업관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Cho, 1997; Poong, 2007). 그러나 아직도 전통 문화적 틀 속에서의 가정 내에서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도 힘을 쏟아야 하고, 아내로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변화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 취업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직업과 가사의 이중부담을 인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는,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성립이후 봉건적 억압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중국정부는 1950년 혼인법을 제정하여 법률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호받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Poong, 2007). 물론 아직 남존여비관념이 잔재해 있기는 하나 선진적인 사고방식들을 흡수하면서 가정 내 부부가 가사를 상호협조하고 남녀의 위치가 상당히 평등함을 유지하고 있다(Cho, 1997). 그러나 한국과 중국, 양국은 모두 유교적 관습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그 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아직까지는 중년여성의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 향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교육수준이 고졸 및 대졸로 높고 직업도 전문직이 45%를 넘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효능이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높다고 보고한 Choi와 Oh (1998)의 연구와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를 폭넓게 확대하여 반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자신이 해낼 수 있다 라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 모두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가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한국 중년여성에서는 49.07점으로 중국 중년여성 49.24점과 유사하였으며, 중앙치인 45점보다 모두 높았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지로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발생을 예방 혹은 경감하고 건강증진 및 스트레스 강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Kim et al.,

1999)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개념으로 살펴볼 때 한국과 중국의 중년여성의 사회적 요구 충족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결속 유대 관계가 그들의 사회적 요구를 긍정적으로 충족시켜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Yu 등(2000)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중간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보다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적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동체적 목적하에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리라 생각된다. 중국사회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 경제적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어 이전의 공동체적 목적하에 사회적 지지와 더불어 개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사회적 지지도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의 경우 1930년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신생활운동과 여성정책, 여성노동자와 모성보호법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으로 가져오고 있으므로(Jeong, 2005) 사회적 지지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Poong (2007)의 한국과 중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 내 여성의 지위는 모두 가사분담에 있어 기존에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성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경우 70% 이상을 아내가 맡고 있으며 젊은 연령대일수록 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가사의 50.3%를 여성이 담당하면서 전적으로 가사일을 책임지는 여성의 비율은 26.7%로 가사분담에 있어 남녀역할에 구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한국의 여성들의 역할이 더 전문화 된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중국이 더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Poong, 2007). Lee (2002)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상품경제의 발달과 함께 성 관념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여성은 자아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도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삶의 질은 한국 중년여성이 70.06점으로 중국 중년여성 57.4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치 90점보다 모두 낮은 정도로서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삶의 질이 모두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의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들이 자기 내에서 독립되어 형성되는 내적 개념으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상태(Dunbar et al., 1992)라고 볼 때, 한국 중년여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보다 높은 경제적 상태에서 중년여성 자신이 주관적으로 안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 중년여성은 한국보다는 낮은 경제적 상태에서 사회주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중년여성의 삶의 질 정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Sung 등(2005)과 Shin과 Yang (2003)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삶의 질이 중간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한국과 중국의 중년여성의 삶의 질이 모두 중간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 중년여성에서는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 간의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효능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자신이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 모두에서 자기효능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 정도가 중앙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를 함께 연구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없어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Choi와 Oh (1998), Seo 등(2003), 그리고 Yu 등(2000)의 연구를 분석해 볼 때 중년여성의 자기효능은 낮으며 사회적 지지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게 일치하였다. 중국 중년여성에서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없었다.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 정도가 역상관관계로 통계학적으로 근소하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한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과 사회적 지지의 역상관관계와 유사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에 대한 상관관계는 한국 중년여성의 결과와 일치하게 상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hin과 Yang (200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 연구대상자 수를 확대한 지속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차이검정을 살펴보면, 한국 중년여성은 교육정도가 중학교 졸업을 한 경우가 자기효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등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거나 고급 교육을 받은 자보다 자기효능이 떨어지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eo 등(2003)의 연구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이 높다고 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였다. 직업에서는 상업 또는 주부인 경우가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자기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업 또는 주부가 본인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전문직이나 사무직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문직이나 사무직은 개인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상업 또는 주부보다 많기 때문에 자기효능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 정도는 결혼상태가 사별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와의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의 슬픔이 사회적 결속 유대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Yu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삶의 질의 경우는 한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Ha와 Shin (2003)의 연구에서도 학력, 직업, 종교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중년여성은 가톨릭 종교를 가진 자가 자기효능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신에 대한 의존도 및 믿음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을 낮게 나타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 상태는 별거 상태가 가장 낮은 자기효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혼 전단계라 볼 수 있는 별거 상태에서의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생각이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을 낮게 나타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불교의 종교를 가진 자가 사회적 지지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불교라는 종교가 그 속에서 결속 유대관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1999)과 Yu 등(2000)의 연구에서 불교를 종교로 가진 중년 여성이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았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삶의 질 경우는 한국 중년여성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 등(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월수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나라의 경제적 수준 및 크기의 차이로 경제적 실물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국의 중년 여성은 원화로 환산하여 15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중년 여성은 150만원 이상의 월수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 두 나라간 중년 여성의 월수입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지는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국제적 임상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는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 자료를 고려하여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자기효능,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정도를 비교 문화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간 차이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 모두에서 자기효능과 삶의 질 정도가 모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나라의 문화 배경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서울 및 경기도, 중국의 북경에 거주하는 중년 여성을 편의 추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모든 중년여성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앞으로 의료의 세계화 및 개방된 의료시장을 위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 동양권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며, 동양권 중년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실험연구를 시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05.
- Cho, S. J. (1997) *A Study of Status Change in Chinese Women*, 1990. Jib Mun Dang, Beijing.
- Choi, E. Y., & Oh, H. E. (1998).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health promoting lifestyle, sex role identity and self efficacy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ial and Child Health*, 2(2), 181-193.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Dunbar, G. C., Stoker, M. J., Hodges, T. C., & Beaumont, G. (1992). The development of SBQOL- A unique scale for

- measuring quality of life. *British Journal of Medical Economics*, 2, 65-74.
- Hwang, J. I., Lou, F., Han, S. S., Cao, F., Kim, W. O., & Li, P. (2009).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6, 313-318.
- Jeong, H. J. (2005). *Effect of industrialization to status of Chinese women under*. Jib Mun Dang, Beijing.
- Kim, M. H., Oh, H. E., & Na, D. M. (199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hardiness, stress and support of middle-aged women. *Researches in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24(1), 56-67.
- Kim, Y. H., Ha, E. H., & Shin, S. J. (2003). A study of the menopausal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 601-608.
- Ko, S. B., Jang, S. J., Kang, M. K., Cha, B. S., & Park, J. K.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n measurement instrument for health status assessment in occupational workers. *The Kore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0(2), 251-266
- Lee, E. O., Lim, N. Y., & Park, H. A. (1998). *Nursing · medical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Soo Moon Sa, Seoul.
- Lee, J. Y. (2002). *The study on the comparison of woman's social status betwee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 Norbeck, J. S. (1981). Social support; A model for clinical research and application. *Advanced Nursing Science*, 3, 43-59.
- Oh, H. J. (2000). Investigation on factors influencing and quality of life of arthritis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2(3), 431-451.
- Pakenham, K. I. (1999). Adjustment to multiple sclerosis: Application of a stress and coping model. *Health Psychology*, 18(4), 382-392.
- Park, H. S., Kim, S. K., & Cho, G. Y. (2003). A study on climacteric symptom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9(4), 479-488.
- Poong, D. P. (2007) *Comparison of social status between Korean and Chines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usan.
- Seo, J. M., Park, H. S., & Lee, S. R. (2003). A study on relationship among knowledge of menopause, self-efficacy and menopausal management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ial and Child Health*, 7(1), 85-95.
- Seo, M. J. (1988). *Analytic study of related factors and adaptive state after discharge in hemiplegia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Shere,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in, K. R., & Kim, Y. J. (2001). Depression among Korean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3), 391-400.
- Shin, K. R., & Yang, J. H. (2003). Influencing factors on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living in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7), 999-1007.
- Suh, Y. O. (1995). *Structural model of health-promoting lifestyle in midlif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 Sung, M. H., Yoon, J. W., & Son, H. Y. (200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mental health in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86-194.
- Thoits, P. A.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Health Society Behaviors*, 23, 145-159.
- Ware, J. E., & Book, R. H. (1981). Choosing measures of health status for individuals in general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1(6), 620-625.
- Yu, S. J., Yang, S., & Yoon, J. Y. (2000). The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gender role barrier in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9(4), 619-630.